

법사학관련 신간안내

- ◎ 沈羲基 『韓國法制史講義』, 삼영사, 1997년 3월, 624면
저자가 그 동안 발표한 논문과 강의안을 학부 및 대학원에서의 한국법제사 강의교재로 정리하여 출판한 것이다. 전체는 6부 20장으로 법사학연구사의 정리, 방법론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와 근현대에 대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울러 부록으로 대전회통과 儒胥必知를 수록하였다.
- ◎ 延正悅 『韓國法典史』, 학문사, 1997년 438면
고조선의 팔조법금, 삼국의 율령에서 조선조 대전회통까지 한국 법전편찬과정 등에 대해 서술하고 아울러 한국과 관련 있는 중국의 법전편찬과 율령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 李鍾日, 『大典會通 索引』, 한국법제연구원, 1997년 12월, 342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발행한 『大典會通 研究』(전4권)의 색인으로 본문 편과 해설편 그리고 吏·兵典의 지명색인을 수록하였다. 앞으로 한국법사 연구에 크게 활용될 것이다.
- ◎ 鄭肯植, 『朝鮮總督府 法令史料 I: 支配機構·立法』, 한국법제연구원, 1996년 12월, 409면
『韓末法令體系分析(1991)』과 『統監府法令體系分析(1995)』에 이은 법령자료집으로 조선총독부의 법령을 종합정리하는 작업이다. 제1편 해설과제2편 분야별 법령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령이 수록된 조선총독부 관보의 권수와 면수를 밝혔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하여 일제기의 법사 및 한국사연구가 활발하기를 바란다.
- ◎ 任大熙·金鐸敏 『譯註 唐律疏議』 各則(上), 한국법제연구원, 1997년 2월, 504면
1995년의 名例편에 이어 衛禁(권7, 8), 職制(권 9~11), 戶婚(권 11~14), 廩庫(권 15), 擅興(권16), 賊盜(권17~20)을 번역·주석하였다. 번역만이 아니라 原文과 注疏를 모두 수록하여 참고에 편리하게 하였다.
- ◎ 체자레 벅카리아 저, 李壽成·韓寅燮 공역, 『범죄와 형벌』, 길안사, 1995년 9월, 182면
근대적 형법과 형사사범을 이끌어낸 고전인 본서가 “길안법학교양총서 1”로 간행되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자세한 해설을 수록하여 고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고, 권말에 벅카리아 연구문헌을 수록하여 연구에 대한 지침까지 제공하였다.

- ◎ Mary A. Glendon / 한복룡 역, 『전환기의 가족법』, 길안사, 1996년 8월, 440면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인 M. A. Glendon의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Law -State, Law and Family in the United State and Western Europe*을 번역한 것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혼인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서구의 가족법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 ◎ Graeme Newman 저, 李環在 역, 『서양형벌사』, 길안사, 1997년 8월, 431면
 호주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G. Newman의 *The Punishment Response (Harrow and Heston, 1985)* 제2판을 번역한 것으로 “길안법학교양총서 4”로 간행되었다. 전부 1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히 형벌의 역사가 아니라 서양문화사적인 서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의 형벌의 실태를 보여주는 도판까지 함께 수록되어 있어 독자의 흥미를 일으키고 있다. 저자는 應報刑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전체에 걸쳐 저자의 형벌에 대한 사고가 잘 드러나고 있다.